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 건의문(안)

의안 번호	1114
----------	------

제출년월일 : 2009. 11.

발 의 자 : 김종하. 강명권, 김현식. 양승모.
심재연. 지덕기. 최병오.

1. 제안이유

세종시의 원안추진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불문헌법이며 정당한 법으로 정해진 것임에도 충청도민 뿐 아니라 지방의 모든 국민의 간절한 염원임.

특히, 세종시의 행정기능을 백지화시키는 대신 세종시를 기업도시로만 만들기 위하여 모든 기업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그렇게 되면 지방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은 물거품이 될 것임. 그중에서도 내달부터 선 분양을 시작하는 충주기업도시는 가장 먼저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이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우리 충주시민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건의안을 제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나. 건의내용

- 세종시 원안추진 이행
- 세종시관련 민관합동위원회 해체
- 성공적인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강력추진
- 세종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덧붙임 : 건의문 1부.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

세종시는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통해 국민이 인정한 불문헌법이며 건국 최대의 국책사업이자 충청인의 간절한 염원이다.

또한, 세종시는 비효율적인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역사적인 소명이자 과업이며 그 어떠한 대의명분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국가백년대계의 국가적·국민적·시대적 대사이다.

세종시의 수정이나 변질은 전국 지방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에도 악영향을 미쳐 결국 물거품이 될 것이며, 그동안 어렵게 이룩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무너져 충청권은 물론 비수도권 전체를 공멸시키는 독약이 될 것이다.

특히, 지난 2004년부터 국민적 열망과 법에 의해 추진돼온 최대의 국책사업이 정치적인 이해타산으로 좌지우지 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고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약속한 세종시를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정부와 국회는 법대로, 공약대로, 국민과의 약속대로 세종시 원안추진을 이행하라!

- 하나, 정부는 세종시 수정을 위해 급조한 정체불명의 불법단체인 민관합동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 하나, 세종시가 축소되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다 죽는다. 정부는 성공적인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라!

- 하나, 정부는 그동안 미뤄온 정부부처 이전변경 고시를 하루 빨리 이행하고 국회는 세종시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09년 월 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발의의원 서명록

☐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 건의문[illegible]